



목자의 약속

시편 23편: 풍요와 신뢰의 이야기

글 지안니 파롤라 • 그림 피노 펜넬로



큰 꿈을 꾸는 모든 어린이에게,
우주는 항상 너의 말을 듣고 있단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너에게 오고 있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너를 지켜주는 착한 목자가 있어,
네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친구야.
그는 네 마음과 모든 꿈을 알고 있어.

"넌 항상 충분히 가질 거야," 그가 말했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기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보게 될 거야."

작은 양들은 미소 짓고 아주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 항상 충분해.
항상 충분한 사랑. 항상 충분한 기쁨.

지금이라는 선물



목자는 그들을 마법 같은 곳으로 데려갔어:
부드러운 초록 초원, 반짝이는 시냇물,
모든 꽃이 "고마워"라고 속삭이는 곳.

"멈추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느껴봐," 그가 말했어,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들이 너에게 찾아와."

작은 양들은 깊이 숨을 쉬고 미소 지었어.
그들은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들이 노래했어.

길을 믿어



때로는 앞의 길이 헛갈려 보였어,
이리저리 굽이치고, 보기 어려웠지.

하지만 목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전체 길을 알 필요 없어.
그냥 다음 발걸음만 내딛으면 돼.
내가 너를 네가 아직 상상도 못 하는
멋진 곳으로 안내해 줄게."

그래서 작은 양들은 믿는 법을 배웠어,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해



어느 날 그들은 그림자의 골짜기에 도착했어,
두려움이 무서운 것들을 속삭이는 곳.

하지만 목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았어: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야 - 너를 해칠 수 없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면,
그림자는 사라져.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작은 양들은 사랑을 선택했고, 갑자기
골짜기가 더 이상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어.

네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목자가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었어.

"삶은 이렇게 작동해," 그가 기쁘게 말했어,
"네가 믿고 감사하면,
네가 필요한 것만 얻는 게 아니야 -
더 많이 얻어! 네 잔이 넘쳐흘러!"

작은 양들은 기쁨에 웃었어.
나눌 풍요가 너무 많았거든!

넌 이미 여기에 속해



그렇게, 날마다,
목자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했어 -
빛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집.

"네 자리를 얻을 필요 없어," 그가 말했어,
"넌 이미 여기에 속해 있어.
선함과 사랑이 너를 따를 거야
네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작은 양들은 이해했어:
그들은 항상 사랑받았고, 항상 안전했고,
그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ש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례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



글: 지안니 파롤라

그림: 피노 펜넬로

Powered by Claude AI and Grok

Onde Publishing

초판 - 2026